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3호 HYUNBULNEWS.COM 2026년 6월 24일(음력 5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교육 현장 가는 '선명상' '마음돌봄' 이젠 정책으로

서울시 '마음건강' 핵심 과제 제시
경기도, 혜주 스님 '자문위원' 위촉
학생 · 교사 명상교육 잇따라 추진
선명상 대중화, 공교육 안착 '기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학생과 교사의 마음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년간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가 교육 현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선명상이 학교 현장의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넘어 교육정책과 교원연수 영역에서도 논의되면서 공교육 접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6월 15일, 조계종 선명상위원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장)을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선명상 대중화와 공교육 현장 도입을 위한 연구·교육에 힘써 온 혜주 스님의 참여로 관련 정책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당선인은 후보 시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학생들을 위한 명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교육 모델 구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인 6월 16일에도 진우 스님을 찾아 미래 교육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선명상의 교육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교육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6월 17일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약 실행에 착수했다. 추진위·자문위·21개 전문위로 구성된 위원회는 '마음건강·교육공동체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혜주 스님은 서울교육위원회에서도 마음건강 분야 위원 참여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선명상 기반 교육 콘텐츠가 정책 논의 단계부터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 역시 후보 시절 진우 스님을 예방해 학생 대상 선명상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명상 교육 교재인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RISEL)〉의 학교 현장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선명상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건강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며 "성인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선명상 교육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상교육은 학생에만 머물지 않고 교사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불교교육협의회(회장 박병기)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수련원에서 '교사에게 건네는 공명의 눈길-학교의 고통과 교사의 회복을 위한 명상·성찰'을 주제로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명법 스님(해인사 국일암 감원)이 '교사의 명상과 실천', 월정사 교육국장 도원 스님이 '학교 명상상담'을 주제로 강의하며 교사의 심리 회복과 명상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명상이 공교육 영역으로 스며드는 흐름은 조계종이 수년간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계종은 그간 선명상 대중화를 역점 종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전국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국제선명상대회 개최, 선명상위원회 출범, 표준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개발, 학교·기업·공공기관 보급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선명상을 특정 종교 수행이 아닌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생활 수행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도 적극 나서 최근 명상과 사회정서학습(SEL)을 한국형으로 융합한 '관계 중심 통합적 사회정서교육(RISEL)'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 총 6종을 발간했다. 이 교재들은 학습자 수준에 맞춰 개발됐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형 교육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 현장의 마음돌봄 수요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선명상이 학교 공동체의 새로운 교육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혜주 스님은 "명상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BTS 특별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운영했다. 사진은 채식라면 파티 후 범어사 선문화관장 석산 스님과 기념촬영 중인 BTS 팬 '아미' 들.

전 세계 BTS '아미' 홀린 범어사

숙박난 겪는 해외 팬 위해
3박 4일 템플 무료 개방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숙박난을 겪는 해외 팬들에게 산문을 활짝 열고, 종교와 국경의 벽을 넘어선 환대를 베풀어 훈훈함을 전했다.

범어사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BTS 특별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사찰이 직접 나서서 부산을 찾은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초 20명(2인 1실)을 모집한 이번 특별 템플스테이에는 918명의 신청자가 몰려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필리핀, 프랑스, 칠레, 일본, 폴란드, 몽골, 페루 등 10여 개국에서 온 팬들이 범어사에 머물며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체험하게 됐다.

범어사는 공연 관람이라는 방문객들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배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입소 첫날인 11일에는 팬들이 공연장에 직접 들고 갈 수 있도록 BTS의 상징색을 활용한 '보라색 연꽃등(LED)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범어사 스님들은 직접 조리한 연잎밥, 떡볶이, 잡채 등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사찰음식을 제공했다. 외출 시에는 종이백에 수제 약과 등 한식 디저트를 개별 포장해 챙겨주고, 1층에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간식 라운지와 BTS 음악 감상 공간인 'BTS Spirit'을 조성했다. 입구에는 '아미 환영 포토존'까지 설치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고 운영한 석산 스님(범어사 선문화관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개방해 세계인들을 맞이해 왔다"며 "이번 행사 역시 공정 숙박 챌린지의 일환이자, 한국불교의 자비심을 전 세계 젊은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작은 선한 마음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감동시키고, 결국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성미 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고

초심이 AI 공모전



경전 속 무겁고 복잡한 교리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쉽고 직관적인 불교의 매력을 현대불교신문 마스코트 '초심이'를 활용해 영상으로 표현해 주세요. 세대를 아우르는 유쾌한 공감대와 참신한 시각으로 일상 속 불교를 빛내줄 창작자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1. 참가 자격
대 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
출품 제한 : 팀(또는 개인)당 최대 1개의 작품만 제출 가능

2. 공모 일정
접수 기간 : 2026년 6월 24일(수) ~ 8월 5일(수)
결과 발표 : 2026년 9월 2일(수) 현대불교신문 지면 및 공식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 개별 통지 병행)

3. 공모 주제 '초심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불교'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나눔, 배려, 명상 등의 '불(佛)며드는 순간'을 AI 영상으로 표현해주세요.

4. 응모 내용 세로형 숏폼 영상(쇼츠 혹은 릴스 형태)
크기 : 1080x1920 해상도 및 30fps 프레임 권장
길이 : 플레이 타임 제한 없음
포맷 : 별도 코덱 없이 재생 가능한 형태(H.264 권장)

5. 시상 내역
대상 200만원(1명), 최우수상 100만원(2명)
우수상 50만원(3명), 장려상 30만원(6명)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 1. 프롤로그 8면

2026학년도 2학기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오프라인 교육)
대원아카데미
불교전법사 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심리상담사 과정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불교전법사 과정
명상지도사 과정
심리상담사 과정
•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가능 • 접수 : 2026년 9월 1일(화)까지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BBS불교방송빌딩(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02-707-1072

제23회(2026년)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 공모 분야(개인 또는 단체)
(1) 출가 부문 (2) 재가 부문 (3) 특별 정진상
◎ 시상 종류 및 상금(각 부문별)
대상 3,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 장려상 500만원
특별 정진상(2명) 각 1,000만원
◎ 제출 서류 : 제23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 양식
양식 다운 :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공지 사항〉
접수 기간 : 2026년 9월 1일(화) ~ 10월 2일(금)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문의 : 02-719-2606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내용 홈페이지(www.kbpf.org)